

도시 온도 낮추고 쉼터 제공 위한 옥상·벽면녹화 사업 확대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2021. 2. 2.

대구시 산림녹지과
2021. 1. 27.

경기도 기획담당관
2021. 1. 25.

서울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확대

서울시는 도심 내 건축물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고 휴게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Green Oasis)를 제공하는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옥상을 생태·환경 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하는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정원도시 서울, 1,000개의 초록지붕 프로젝트’라는 비전 아래 공공·민간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청사의 경우 대법원 청사(서초구)를 포함한 16곳(옥상 6,765m²)이 생태친화형 공공건축물로 탈바꿈한다. 민간건축물은 aT센터 등 7곳이 참여해 옥상 2,385m²에 녹색지붕을 씌울 계획이다. 시는 작년 3월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50%였던 자치구·공공기관·민간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비율을 70%까지 상향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민간건축물은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옥상녹화 전문업체 선정부터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편의를 높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시 옥상녹화 조성 사례



서울소방재난본부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서울역 롯데마트



강동구 상일 주민센터

출처: 서울시, (2021). 서울시, 20년간 축구장 45개 규모 옥상녹화... 올해도 23개 건물 그린 오아시스로. 2월 2일 보도자료.

대구시, 2021년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시행

대구시는 삭막한 콘크리트 옥상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2021년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공공 부문 7곳, 민간 부문 30곳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으로 2곳* 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무더위쉼터 관련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으로 5곳**에 옥상녹화를 진행한다.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하늘정원 조성 지원사업은 옥상의 녹화 가능 면적이 35m²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조성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시가 7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0m²에 1,5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학교·도서관 건물 등에 ‘그린 커튼 조성사업’ 실시

경기도가 올해 도내 관공서·학교·도서관·임대주택단지 등 87곳을 대상으로 ‘그린 커튼(Green Curtain)’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그린 커튼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벽면녹화 공법이다. 도는 오는 4월부터 학교 13곳과 도서관 31곳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분야 84개 공간에 그린 커튼을 우선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편의시설 3곳에 대해서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한된 도심 공간에서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2개 면적(약 1만 4,080m²)에 해당하는 녹색 쉼터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린 커튼 조성 사례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컨벤션센터

출처: 경기도, (2021). 도, 학교·도서관 등 87곳에 ‘그린 커튼’ 조성한다...축구장 2개 면적 녹지조성 효과. 1월 25일 보도자료.

* 중앙교육연수원, 범어도서관

** 시청별관, 팔공노인복지관, 화수경로당, 대덕경로당, 강북경찰서